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1. 29

「마가복음 마흔두 번째 말씀」

세상이 놀라는 이유

Why the world is amazed

마가복음 12장 13-17절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1. 바리새인은 유대인들로서 민족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헤롯당은 그런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를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서로 견원지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한마음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13절)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로 생각을 나눠봅시다.

2. 다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 1)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질문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앞면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뒷면에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무엇이냐라 적혀 있는지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 2)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질문(14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그런데 이 17절 헬라어 원문에는 καί(카이) 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는 ‘그러나’ 두 가지 의미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καί(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래 성경학자들은 이 καί를 ‘그리고’가 아닌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3) 17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나눠봅시다.

3. 설교에서 위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님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서로 기도하며 뜻을 나눠봅시다.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nsas